

지역 6개대, 글로벌대학 본선... 전남도 "전폭 지원"

전남대 기획서 보완 예비지정 유지 광주보건대, 대전·대구보건대 연합 목포대, 전남도립대와 통합 전제해 동신대연합체 공공형 사립대 모델 7월 실행계획서 제출 8월 최종지정

인구·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에 전국 33곳(20건)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광주·전남에서는 총 6개 대학이 선정됐다.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와 광주보건대학교가 예비지정됐다. 전남대는 지난해 최종관문인 본지정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셨지만 교육부가 전남대처럼 본지정에서 떨어진 대학 5곳에 기존 혁신모델의 방향을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보완하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재도전에 나섰다.

전남대는 △메카 캠퍼스 조성 △에듀생태계 구현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 △인공지능 혁신 허브 구축을 내세워 계획을 수정·보완해 제출했다.

광주의 또 다른 예비지정 대학 광주보건대학교는 대전보건대·대구보건대와 연합해 보건 의료계열 전문대학 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에서는 10개 대학이 도전장을 던졌으나 2개 대학만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앞서 단독으로 공모한 호남대학교, 내부 통합과 외부 연합을 통해 도전한 조선대학교와 4개 대학(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은 이번 예비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남에서는 5개 대학 중 순천제일대학교를 제외한 4개교가 예비지정됐다. 단독 신청한 목포대학교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학교 연합체가 예비지정 단계를 통과했다.

목포대는 당초 전남도립대학교와 통합을 목표로 공동 신청하려 했으나 전남도

립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으로 노선을 바꿨다. 목포대는 전남도립대와 통합을 토대로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과 계획을 담은 기획서를 제출했다.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UCC: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일 정관, 단일 이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 기초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공기업, 지역기업이 연합이사회를 구성하며 전남도지사가 이사회의 장을 맡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함께 예비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천제일대학교는 정주형 외국인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연계 혁신계획을 제시하며 전문대로서의 자체 혁신역량을 보여줬으나 예비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남의 경우 순천대가 지난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상황에서 서·중부권에 위치한 목포대, 동신대 연합이 최종 지정된다면 전남도 지역대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광주 2건(단독1, 연합1), 전남 2건(단독1, 연합1) 총 4건이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에 올랐다.

예비지정 대학은 7월까지 혁신기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글로벌대학으로 도내 대학이 신규 지정되는 것은 200만 전남도민 염원이 담긴 중요 사안"이라며 "이번에 예비지정된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자·산·학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글로벌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 서구 자원순환가게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6일 서구청에서 자원순환관리사 148명을 위촉한 후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자원순환가게를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전남 18일까지 황사 여파 이어져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 여파가 이어지겠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황사 여파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6~12도, 낮최고기온은 18~25도가 되겠다. 18일 아침최저기온은 8~13도, 낮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측됐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기간과 지역, 농도가 매우 유동적이나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이 기자

누범기간에 '또'... 30대 중고거래 사기범 영장

후배와 공모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기소에 놓였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은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거래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의 가로천 혐의로 남성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B(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으로부터 660여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A씨와 사회 선후배 관계인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 10%를 받아 챙겼다. B씨는 불법 도박으로 1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B씨가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동중 전과로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주비 기자

실투자금 700만원으로 꾸준한 평생소득!

연금보다 든든하고, 오피스텔보다 확실하고
주식투자보다 높고, 은행적금보다 안전한
스마트 365 앞새삼 투자!

1구좌 3,000만원 투자 시

- 3년 후 2,300만원 반환
- 3년간 실투자금 700만원 1년 임대료 600만원
- 실투자금 기준 3년 누적수익률 257.1% 연간 수익률 85.7%

성공을 위한 똑똑한 투자원칙

투자 3대 법칙

안정성 | 수익성 | 성장성

- 매월 임대료 50만원 보장
- 3년 수익 총 1,800만원**
- 앞새삼 30뿌리 & 황제옥고(경옥고) 12BOX
- 2,400만원 상당 혜택 제공**
-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약속
- 금융권 이행(지급) 보증서 발행**

오피스텔, 은행, 채권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스마트365앞새삼!

구분	오피스텔	은행 적금	국공채(3년)	주식	스마트365앞새삼 (임대료)
투자금	1억 5,000만원	2억 1,000만원	1억 7,900만원	4,900만원	초기투자 3,000만원 (실투자금 700만원)
월 기대 수익금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임대료)
수익률(年)	4%	2.84% *2023년 상반기	3.35% *2023년 12월	14.65% *2023년 상반기 개인투자자 연평균 수익률	85.7% *실투자금 기준 연 수익률
안정성	보통	높음	높음	낮음	높음 *금융권 이행(지급)보증서 발행

[청약안내] *미 계약 시 청약금은 반환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청약금	예금주
신한은행	100-036-894285	100만원	(주)앞새삼

*실투자금 기준 3년 누적수익률 257.1% 연간 수익률 85.7%

문의 **02-2268-3335**

서울 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18 을지스타빌

*상기 CG 이미지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